믿는다는 주장 대신 증거를 대자

(이사야 6:1~7)

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6.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믿는다는 주장 대신 증거를 대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는다는 주장 대신 증거를 대자'

재판을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법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법률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지를 확인해야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사실이면 증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확신이고 착각일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 증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이 이것을 잘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 받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나오는 이사야의 모든 예언이 이 환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선민다움의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유전자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자면 참 선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택함 받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환상에서 표현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셀카 같은 스냅샷(snapshot)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영상과 같습니다. 고정된 하나의 사진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움직여가는 동영상입니다. 믿음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 믿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스냅샷이 아니라 동영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확신하기도 하지만 그 증거를 찾으려는 사람은 드뭅니다.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언제부터인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구원받았음의 증거를 찾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을 스냅샷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부활이 아니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새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세례 받고 교인이 되면 이것으로 믿음이 완결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원하는 바를 강청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속시켜 나갈 때에 은혜는 비 오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전체의 근원과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언자는 하나님과 선민 간의 거리를 측정해주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리의 측정 기준이 바로 구원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면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고, 입으로는 아무리 믿음을 주장하여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들의 가장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예언서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느냐 아니냐에 따라 측정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스랍(שׂרף)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본문의 맥락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있는 선민들의 마음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랍은 '불로 태우다'라는 '사라프'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처럼 불길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스랍은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바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하늘에서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하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면 제자들과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화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냉담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만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의 화신이 될 때에, 내가 냉담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열정이 불붙게 됩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의 열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냉담해지고 만다면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일에 집중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정을 일으키는 일들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써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열정을 쏟는 불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열정이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가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럴 때에 냉담해진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열정이 관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에 만져지는 모든 것들에게 마음을 나누어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쏟을 마음이 없습니다.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정을 보이는 세상일들에 찬물을 부으시며 돌이키기를 촉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고백하고,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야만함을 고백한다면 열정은 나타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스랍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절의 '여섯 날개 중에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다'라는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그 둘로는 날며'라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먼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이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루아크(רוּחַ)'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루

아크는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바람(wind)'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람 같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도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바람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며 이렇게 바람 같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앞서 보았던 날개의 모습들을 다시 살펴봅니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다른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얼굴을 가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뵙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이 끌릴 것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번제단에서 죽거나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이 마음을 예쁘게 보십니다. 이 마음을 너무너무 예쁘게 보셔서 뚫어지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우리는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머물러 있으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나의 자의식이 저절로 조절이 됩니다. 이러한 자아의식의 변화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났다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주눅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존재임을 알기에 그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정된 자아의식이 사람을 만날 때에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연인들이 서로를 바라보기 좋아하지만, 뚫어지게 바라보면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등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러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수줍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쁘다고 바라보고 계시니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발을 가리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발은 곧 이력입니다. 더 이상은 내 인생길을 걷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 선 상태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인생의 여정을 결코 스스로 결정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로써 첫째는 하나님을 가졌으니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게 주어진 과제나 사건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은 능력과 생각을 내세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둘로는 날며'라는 것이 바로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람 같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바람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유일한 길은 날개를 갖는 것뿐입니다. 바위든지 풀이든지 나무든지 이 세상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람이 스쳐지나갈 뿐 바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개를 가진 새들은 바람을 타고 바람과 함께합니다. 둘씩 얼굴을 가리고 둘씩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날개로 바람을 타고 바람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 증거는 바로 세상에 대해 바람둥이가 되는 것으로써 나타납니다. 아시는 대로 바람둥이는 배우자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다른 이성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람기를 잡는다고 사위한테는 닭날개도 주지 않는 풍습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피우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바람둥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붙이지 못한 채 날개를 달고 바람이신 하나님을 타는 것입니다. 날개가 마음을 붙일 곳은 바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인 한 그것이 가족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칠십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건이 땅에 있는 것인 한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개척교회의 목사님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목회를 시작했다가 십만 명 성도를 거느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대상이 교회일지라도 마음을 붙이게 된다면, 그것은 바람이신 하나님을 놓친 증거가 됩니다.
날개를 달고 바람이신 하나님을 타고 있다면 세상에서는 이 모습이 기이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놀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고 난리인데 이 사람만은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놀라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겠다고 안달이 나있는데 이 사람은 마음을 주지 않고 바람을 피우며 도망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바람난 자들입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배우자에게 심겨있지 않습니다. 바람이신 하나님을 타고 배우자를 스쳐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기쁨과 평강의 바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루아크는 헬라어로는 프뉴마(πνεύμα)입니다. 프뉴마 또한 영,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바람이 스쳐지나가면서 이들에게 하늘 기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마음을 붙이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바람피움이고 영적인 음란입니다. 돈에 마음을 붙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민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음란함이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또한 영적인 음란함의 결과입니다. 바람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심긴 사람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시기에 음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날개를 가지고 바람이신 하나님을 타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세상에 대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세상의 어느 것에서도 마음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붙이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그 대상으로부터 지금과는 다른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섯 날개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간 열정의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굴을 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보잘 것 없는 자아의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 것 없는 나를 예쁘게 보시고 똫어져라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넋이 나간 듯 나를 똫어지게 바라본다면 마음은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하지만 눈을 마주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머물지 못하기에 우리를 바라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이력서를 써내려가는 것이고 곧 발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날개를 가지고 바람이신 하나님을 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중단하기 위해 십자가 생활화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과 관심과 신경을 잡아끄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어야 합니다. 이미 죽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우리를 하늘로 끌어 올리실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아버지께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은 스냅샷이 아닌 동영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늘에 머물면 스랍이 상징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불꽃같은 열정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쌍의 여섯 날개가 뜻하는 삶이 구원의 증거로써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은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일이 생기고, 내 관심과 신경을 끄는 대상들이 생겨날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가 지속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스냅샷처럼 한 번 세례 받고 믿었다고 고백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동영상이고, 동영상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머물게 할 것이고, 이 땅에서는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제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